

원로과학기술자가 걸어온 한평생

石泉 金 東 一 박사



4개 단체 통합 ... 科總창립에 술한 秘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지난 9월 2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각종 행사를 벌였다. 30주년 행사를 지켜보면서 과거 과총이 발족하던 당시의 일들이 뇌리에 주마등 같이 스쳐가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과총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과총의 역사는 1966년 5월에 열린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자들의 활동이 저조함을 면치 못하였다. 60년대 초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했던 과학기술 관련단체로는 대한기술총협회·한국산업기술본부·한미기술협력회·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 등 4개 단체를 꼽을 수 있다.

1952년 발족된 대한기술총협회는 金允基씨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 단체는 광공업계통의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하는 등의 일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다. 한국산업기

술본부는 1964년에 창립되어 이재만씨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광공업과 농수산업 계통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나 역사가 일천하여 활동은 대한기술총협회 수준 이하였다.

한미기술협력회는 1965년에 출범되어 박영준씨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정부 또는 미국 원조기관의 원조로 해외에 파견되어 기술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당시 수천명의 회원을 거느릴 정도로 비교적 큰 단체였으나 기초과학자와 의학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는 1963년에 발족되어 윤일선씨가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학·공학·농학·의학계통 등 비교적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활동은 대한기술총협회에 비해 열세였다.

과학기술자 대회서 창립 선포

당시 나는 한국과학기술진흥협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대한기술총협회 상임

이사 일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두 협회간 협력사업을 펼치는데 힘을 썼다. 두 협회가 함께 사업을 펼치다보니 자연스럽게 전체 과학기술자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대한기술총협회 김윤기회장과 협의하여 두 협회의 장·단점을 살려 통합하기로 했다.

김윤기회장과 내가 합의한 사항은 보다 강력한 과학기술진흥 운동을 펴내기 위해서는 두 협회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과학기술관련 학회와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김윤기회장과 함께 한국산업기술본부와 한미기술협력회 회장을 만나 이같은 취지를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다.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는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4개 단체는 이를 기해 발전적으로 해산하는 한편 과총 창립을 발의하게 되었다. 우선 4개 단체는 각각 4명씩의 대표를 뽑아 16명으로 구성된 집행부를 구성했다. 집행부

는 위원장에 김윤기, 부위원장에 필자·김형용·조효원, 재정부장에 박대진, 위원에 김립삼·이수진, 섭외·선전부장에 박희선, 위원에 우형주·나세진, 시설부장에 김용희, 위원에 민수홍·박대규, 총무부장에 조남욱, 위원에 이채호씨로 짜여졌다. 그리고 회장단은 대회장에 김윤기씨를 추대했고 1965년 12월부터 수시로 모임을 갖고 대회준비를 갖추어 갔다.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는 1966년 5월 19일 발명의 날을 겸하여 서울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朴正熙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과총 창립을 정식 선포하고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 선정 등 제반사항을 김윤기대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내용은 첫째, 과학기술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둘째, 과학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 셋째, 과학기술회관을 건립할 것 넷째, 국무위원을 행정책임자로 하는 과학기술전담부처를 설치할 것 등 4개항이었다. 대회에서 과총 창립총회 개최를 위임받은 김윤기대회장은 대회 준비위원들과 상의하

여 42명의 과총 창립준비위원을 선정했다. 과총 창립을 위한 첫 준비위원회는 1966년 6월 24일 남산의 외교구락부에서 열렸다. 첫 모임엔 대회준비위원중에서 김윤기·필자·박영준 외 6명과 이학부문에서 현기순 외 7명, 공학부문에서 이균상 외 6명, 농수산부문에서 조백현 외 6명, 보건부문에서 명주완 외 5명, 기타부문에서 선병택 외 4명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위원회 규정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김윤기, 부위원장에 필자·박권원·김호식·권영대·홍정모 등을 선임하고 정관 기초위원으로 위원장단과 김형용·김용희·박희선 등을 선정했다.

그리고 제2,3차 위원회를 6월 29일 한국전력(주) 간부식당과 9월 15일 서울역 구내식당에서 각각 열고 정관안을 심의, 의결하고 창립총회를 9월 24일 신문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창립총회는 김윤기 준비위원장의 개회사와 준비부위원장인 필자의 경과보고에 이어 임시회의장에 선출된 김윤기위원장의 사회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회장에 김윤기, 부회장에 권영대·필자·김해림·김호식·명주완, 이사에 김한태·김현규·이민재·장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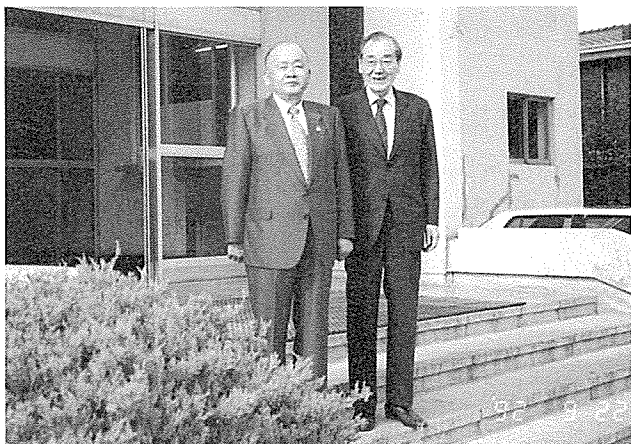
(이상 이학부문)·김용희·김희철·우형주·이균상(이상 공학부문)·김문협·이남신·이상현·현신규(이상 농학부문)·나세진·이춘근·조성호·홍문화(이상 보건부문)·김순하·박희선·임일식·주리희

(이상 종합부문), 감사에 박창원·이채호·홍정모 등이 각각 선임되었다. 과총은 이렇게 해서 이학부문 12개·공학부문 12개·농수산부문 12개·보건부문 39개·종합부문 15개 등 도합 90개 과학기술 관련단체가 하나로 힘을 집결시킨 대조직체로 모습을 갖추었다.

회관 없어 사무실 4번 옮겨

과총은 발족하면서 ①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심의와 건의 ②국내외 과학기술의 교류와 소개 ③과학기술에 관한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④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회합의 주최와 주선 ⑤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⑥ 과학기술에 관한 잡지와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⑦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⑧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⑨과학기술의 창달을 위한 풍토조성사업 ⑩과학기술회관의 건립과 운영 등 10개항에 이르는 목적사업을 정했다. 과총이 탄생됐지만 회관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회관이 없어 처음 서울 종로구 수표동에 있는 전기회관에 자리를 잡았다가 종로구 필운동의 성도빌딩, 중구 예관동의 시사통신빌딩, 용산구 갈월동의 한성빌딩 등으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녀야 했다.

이같이 이사를 자주해야 했기 때문에 과총은 제5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가 열린 1971년까지 매해 회관문제를 상정,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서울에는 신문회관·예총회관·교육회관·체육회관·노동회관·어린이회관·여성회관 등 직업과 직능별 단체들의 회관이 20여개나 되었다. 과총회관(과학기술회관 본관을 뜻함:이하 같음)건립 경위에 대해서는 과총 20년사(1986년 발간)와 「과학과 기술」지 1981



▲ 1992년 한국과학기술회관(본관)현관에서 민관식명예회장(左)과 필자

년 11월호 및 12월호에 실린 『과학기술 회관 건립 전후』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당시 설치되었던 한국과학기술센터 회관건립 기성회에 얽힌 몇가지 일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총이 지하 1층, 지상 9층, 연건평 약 2천여평의 건물을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마련하는데는 최소한 3억6천만원이란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회관건립을 위해 마련한 돈은 정부 보조금 2억원과 그동안 적립한 3천만원을 합해도 2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한국과학기술센터 회관건립 기성회는 모자라는 1억3천만원을 모금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당시만 해도 기업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업에서의 모금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대할 곳이란 기업 밖에 없었다. 따라서 모금활동을 위해서 회장의 역량과 역할은 무척 컸을 뿐 아니라 무거웠다. 그래서 회장에 어떤 분을 모셔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나는 고심 끝에 朱耀翰씨를 떠올렸다. 주요한씨는 우리나라 현대시(詩)운동의 선구자로 문학과 일반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일찍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경향신문에서 논설위원으로 필력을 날려 언론인으로도 유명했으며 국회의원(서울 중구: 신민당)과 건설부 장관으로 있을 때 청렴결백한 사무처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한씨가 이같이 어려운 일을 맡아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기금 모금위해 주요한씨 영입

주요한씨는 나의 8년 연배로써 같은 평양 출신이어서인지 평소 나를 지극히 아껴 주었다. 주요한씨는 60년대 초 대

한민국 헌법기관인 경제과학심의회 의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여러번 나를 과학 기술 전문가의 한사람으로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하면 여러 관련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또한 주요한씨는 일본 동경 명치 학원 중학부를 거쳐 일본 최고 명문인 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수재였지만 이를 포기하고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가 1925년 상해고등학교 이학부 화학과를 졸업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나는 이같은 배경과 경력을 생각하며 간청하면 수락할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곧 김윤기회장과 함께 대한해운공사 사장실을 찾아가 주요한씨를 만났다. 그리고 찾아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주요한씨는 나의 설명을 듣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했다.

나는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하며 속이 탔다. 주요한씨는 침묵을 깨고 “큰 힘은 되지 못하겠지만 도와주겠다”며 회장직을 수락했다. 이렇게 해서 1972년 5월 기성회가 발족하게 되었고 나는 회장인 주요한씨를 적극 보좌하기 위해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후 나는 주요한회장을 모시고 찬조금 모금을 위해 각 회사 사장실을 순방하게 되었다.

과총회관 건립을 위한 찬조금 모집엔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 사무총장으로 있던 宋承胤씨가 주요한회장의 비서격으로 그림자같이 수행하며 일을 적극 도와 주었다. 이렇게 해서 3년만에 1억원의 찬조금을 모을 수 있었다. 모금과정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적지 않았다. 효성그룹의 趙錫來사장은 주요한회장이 협조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자 “선생님께

서 오셔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즉시 찾아와 1백만원짜리 어음을 놓고 갔고 연합철강의 權哲鉉사장은 우리 일행이 방문하자 “돈을 벌어 이런 곳에 쓰지 않으면 어느 곳에 쓰겠습니까?”라며 즉석에서 2백만원짜리 어음을 끊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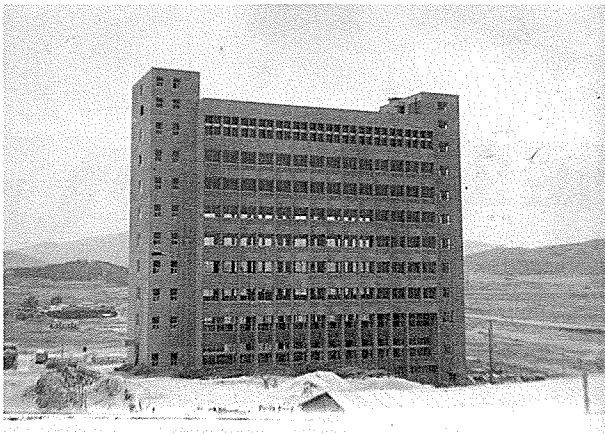
과총회관 건립자금 모금에 큰 힘이 된 것은 朴忠勳씨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무역협회가 자진하여 4백60만원을 쾌히 회사해 온 일이었다. 당시 나는 김윤기회장과 함께 무역협회 산하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으로 있었다. 무역협회가 선뜻 찬조금을 내놓은 것은 이같은 인연이 큰 힘이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국경제인연합회(회장·金容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太完善)가 이어 각각 5백만원의 찬조금을 보내왔다.

공사비 3천만원 탐감도

한번은 주요한회장과 함께 당시 대한방직협회 金龍潤회장을 방문하여 5백만원 찬조회원 가입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약속만 한 상태에서 갑자기 김회장이 사임하게 되었다. 우리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까 해서 몹시 걱정했다. 그런데 얼마 후 신임회장으로부터 찬조금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김회장이 사임하면서 과총건립 자금지원 약속사항을 신임 회장에게 사무인계한 것이었다.

실로 감격스런 일이었다. 김용주회장은 주일(駐日)공사와 민주당 원내총무를 역임한 분이였다. 대한양회협회 鄭英基회장이 시가 5백만원 상당인 시멘트 3만 포를 기증했고 개인 자격으로 吳植朱박사가 1백만원, 李泰鉉씨가 90만원 상당의 정원수를 기증했는가 하면 利川전기의 張炳贊사장이 시가 4백60만원 상당의 유압차단기를 기증했다.

정영기회장은 건설부장관을 역임한 분



▲ 지난 1966년 허허벌판이었던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에 건립된 한국과학기술회관(본관) 완공후 입주하기 직전의 전경

이고 이태현씨는 동경제대 농화학과 출신으로 제2대 화학연구소장을 역임한 분이었으며 장병찬사장은 동경제대 경제학과를 나온 분이였다. 또 당시 과총 부회장 가운데 한 분이었던 홍文和박사는 단독으로 국내 제약회사를 찾아다니며 1백여만원을 모아왔다.

나는 지금도 이분들의 뜨거운 협조에 대해 가슴 속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연합철강의 권철현사장이 한 때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난 봄 총선에서 권사장의 장남인 권憲成씨가 통일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과총회관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건설(주)이 주 시공자가 되어 1978년 9월 준공되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인해 약 3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체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미지불금은 후에 민관식씨가 과총회장을 맡게되자 민회장과 친분관계에 있는 한국건설의 金仁得사장이 이를 탕감해 주었다. 주요한회장은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다망한 한국해운공사 사장 일을 보면서 과총회관 건립에 전력했다.

과총은 발족후 실로 많은 일을 했다. 그중에서도 한 국원로과학기술자 문단활동은 보람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한국원로과학기술자문단은 趙完圭박사가 과총 제8대 회장으로 있던 1986년 4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

소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대표 2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단식을 가졌다. 대학·연구소·산업체 등에서 정년퇴직한 국내외 원로과학기술자들을 결집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자는 것이 설립취지였다.

원로과학기술자문단 회장 말마

과총은 발단식에 앞서 산하 학회에 원로과학기술인의 추천을 의뢰해서 54개 학회로부터 2백43명의 원로과학기술자 명단을 접수했다. 전공분야별로 보면 의학 54명, 전기·전자 49명, 농수산 38명, 토목·건축 22명, 생물·유전 18명, 섬유 17명, 화학 13명, 자원·광산·지질 11명, 기계 10명, 금속 8명, 소재·요업 2명, 정보·경영 1명이였다.

나는 초대 단장에 선임되어 이 일을 관장하게 되었다. 부단장에는 김기형·우형주·박희선씨가 선임되었고 박희선씨는 간사장을 겸했다.(후에 부단장으로 김옥준·옥종화·이춘근씨가 추가됨) 한국원로과학기술자문단은 운영위원회와 그 산하에 6개부와 23개(현재 30개) 분과를 두었다.

초대 운영위원장엔 과총회장이었던 조

완규박사가 맡았고 운영위원에 필자·김기형·우형주·박희선·강영선·염영화·송태운·옥종화·김낙정·이명복·조성호·신용균·정조영(과총 사무총장)씨가, 부장에 강영선(이학)·김선집(공학)·옥종화(농수산)·이명복(의과)·신용균(종합)(후에 이명복씨가 사임하고 양재모씨 취임)씨가 맡아 수고해주었다. 사업은 ①산업체의 애로기술 전수 및 개발지도 ②연구소 운영과 연구인원 충원에 따른 지도 및 자문 ③선진국 연구소 견학 알선 ④과학기술 용어 제정·문헌번역·감수 ⑤대학·연구소의 연구활동 지도 및 자문 ⑥과학기술 정책 자문과 각종 세미나 개최 ⑦각급 학교에서 요청하는 특강으로 정했다.

과총은 자문단 활동을 활발히 펴나가기 위해 산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문단 명단을 배포했다. 그리고 회장단이 중소기업협회 중앙회(회장·유기순) 등을 방문해서 취지설명과 함께 협력을 요청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발족후 자문요청이 도처에서 들어왔다. 한국원로과학기술자문단은 발족후 10년 동안 매해 1백여건의 자문과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근세 과학기술100년사 조사연구사업을 비롯해서 한국전통기술의 국제화방안 연구 등 총 11건의 연구보고서도 납본했다.

과총은 자문단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명칭을 한국과학기술봉사단으로 바꿔 단원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좀더 내실있는 봉사사업을 하기 위해 새출발했다. 나는 이를 계기로 단장겸 간사장직을 사임했다. 그동안 부단장을 맡았던 박희선씨의 희생어린 봉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든 임원과 단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 ㉟